

JB Weekly Web Magazine

| 2025.07.23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 | | |
|-----------|---|-----|
| 01 | 호우피해 수출입 기업에 관세 납부 연장·조사 유예 등 종합 지원 | p.1 |
| 02 | 산업부, 인도 철강부와 철강 협력 강화 기회 마련 | p.2 |
| 03 | 인천항-징탕-황하 잇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 | p.3 |
| 04 | 관세청 적발한 불법수입품 310만점... 최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위반 | p.4 |
| 05 | 관세청,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 p.5 |

1 호우피해 수출입 기업에 관세 납부 연장·조사 유예 등 지원

FTA 원산지 검증 연기·특별통관 지원 등도 포함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이 포함된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이나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환급은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만 해당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도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FTA 원산지검증 지원도 포함됐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경우 연기 신청 시 적극 반영한다. 호우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으면 상대국에 검증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기한도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기간이 기존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년 범위 내로 연장된다. 또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면제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별지원		관세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① 세정지원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	042-481-7870
		박경석 사무관	042-481-7871
② 관세조사 유예	기업심사과	신재형 과장	042-481-7980
		문경환 사무관	042-481-7656
③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과	마순덕 과장	042-481-3220
		김무단 사무관	042-481-3213
④ 특별통관 지원	통관물류정책과	박천정 과장	042-481-7810
		이현성 사무관	042-481-7825

2 산업부, 인도 철강부와 철강 협력 강화 기회 마련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인도 수출 위한 인도 철강부 관심 요청

정부는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와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7월 18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 분야 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의 대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 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연간 300만 톤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산 수입제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 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3 인천항-징탕-황하 잇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

‘샤오원호’ 21일 인천항 첫 입항, 5일 1항차 서비스 개시

인천항과 중국 허베이 지역 항만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가 개설됐다.

인천항만공사는 7월 21일 인천-징탕(JINGTANG)-황하(HUANGHUA)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 서비스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신규 항로 서비스(HIS, Huanghua Incheon Service)는 한국의 인천항과 중국 허베이 지역의 두 항만을 연결하는 최초의 항로로 중국의 허당항운Hede(Hongkong) International Shipping Limited)에서 600TEU급 선박 'M/V SHAO YUN(샤오원)'호를 투입해 주 1.5항차(5일 1항차)로 운영한다.

공사는 이번 항로 개설로 황하항에서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해 중앙아시아까지 연결이 가능해 중고자동차 수출에도 기여하는 등 연간 5만 TEU의 물동량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는 향후 신규항로 홍보와 함께 허베이성 지역에 수출입화물 운송을 희망하는 주요 화주를 대상으로 물동량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사장은 “이번 신규항로 개설로 허베이 지역 수출 시 선박 확보는 물론 물류비 절감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4 관세청 적발한 불법수입품 310만점...원산지 위반 최대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00개 품목 집중검사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점), ▲수입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만 7,000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수입요건 위반은 KC 인증 대상 품목인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

관세청,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해상수출 운송비용 EU만 하락, 항공수입은 EU만 상승

관세청은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했다. 6월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 운송비용 중 해상 수출입 비용은 하락했으며, 항공 수출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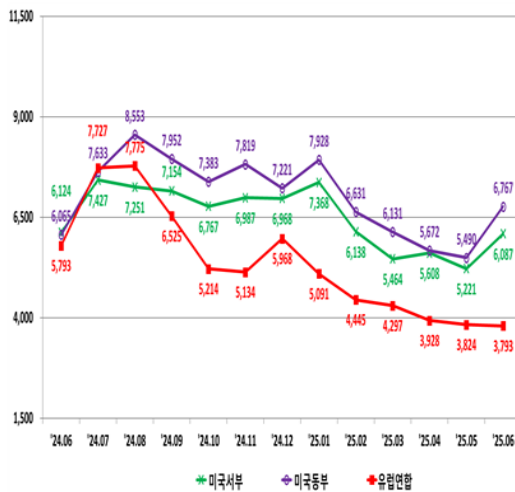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6월 해상수출은 전월 대비 EU를 제외한 모든 노선이 운송비용이 상승했으며, 해상수입은 미국 서부는 하락한 반면 동부는 상승하는 등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해상수출 2TEU당 운송비용 중 전월 대비 유일하게 하락한 EU는 3,793천원(△0.8%)으로 나타나 6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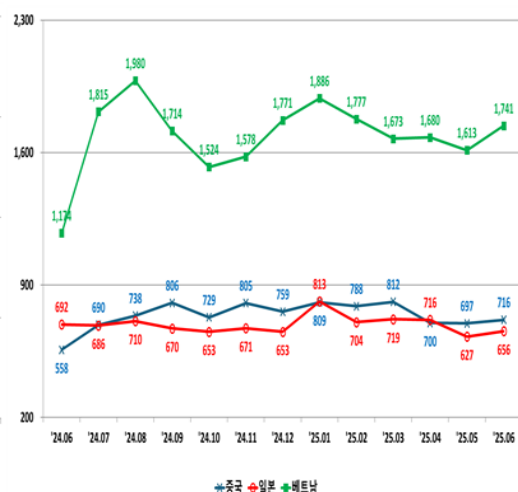
하지만 미국 서부 6,087천원(16.6%), 미국 동부 6,767천원(23.3%), 중국 716천원(2.7%), 일본 656천원(4.6%), 베트남 1,741천원(8.0%)으로 상승했다.

< 해상 수출 (천원/2TEU) >

원거리 항로(미국 동·서부, 유럽연합)



근거리 항로(중국, 일본, 베트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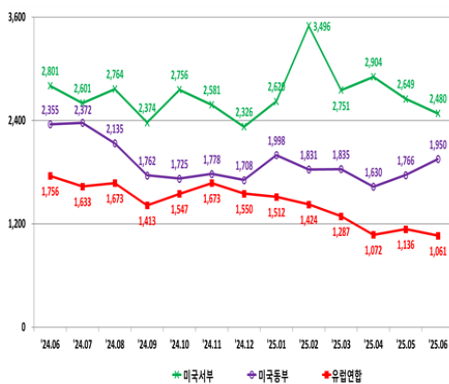
관세청,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해상수출 운송비용 EU만 하락, 항공수입은 EU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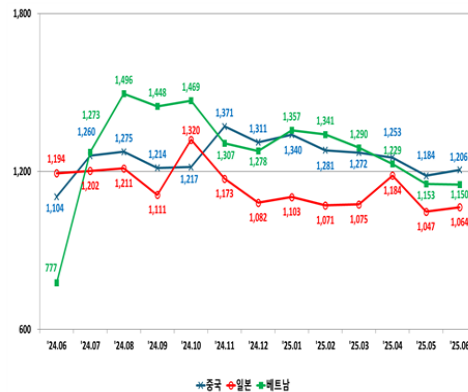
해상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 2,480천원(△6.4%), EU 1,061천원(△6.6%), 베트남 1,150천원(△0.2%)으로 하락했으며, 미국 동부 1,950천원(10.4%), 중국 1,206천원(1.9%), 일본 1,064천원(1.6%)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해상 수입 (천원/2TEU) >

원거리 항로(미국 동·서부, 유럽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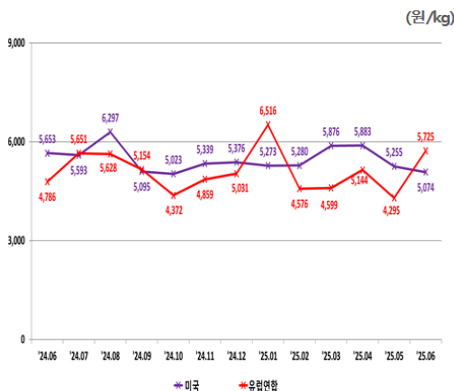
근거리 항로(중국, 일본,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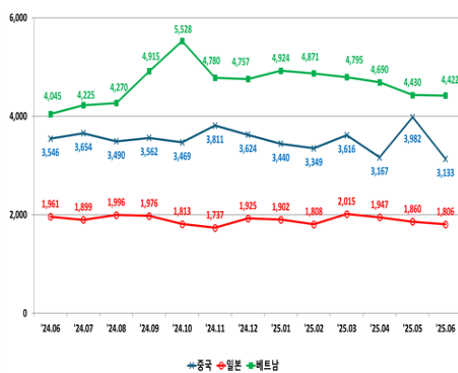
항공수입은 전월 대비 kg당 미국 5,074원(△3.4%), 중국 3,133원(△21.3), 일본 1,806원(△2.9%), 베트남 4,422원(△0.2%)은 하락한 반면 EU는 5,725원(33.3%) 상승해 해상수출 운송비용과 대조를 보였다.

< 항공 수입 (원/kg) >

원거리 항로(미국, 유럽연합)



근거리 항로(중국, 일본, 베트남)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은 컨테이너 2TEU당 운송비용 평균으로 2TEU는 40피트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다. 해당 운송비용에는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드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을 말한다.